

60% “호남 민심 가장 잘 대변할 정당은 국민의당”



■ 호남민심을 가장 잘 대변할 정당은

광주·전남지역민의 60%는 국민의당을 호남 민심을 대변할 정당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. 이번 여론조사에서 '향후 호남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정당'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.5%가 국민의당이라고 답했다. 이어 29.2%가 더불어민주당, 3.4%가 새누리당, 2.5%가 정의당을 선택했다. 기타 정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.8%, '지지정당 없음' 또는 '잘 모르겠다'는 응답자는 3.6%였다.

이 같은 조사 결과는 단순 정당지지도 순위(국민의당 54.1%, 더민주 30.7%, 새누리당 5%, 정의당 5%)와 같은 것이다. 하지만, 국민의당 선택 응답자는 5.1%포인트 늘어났다.

이는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비록 지지하는 정당은 다른 정당이어도 호남민심을 대변할 정당으로는 소속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.

■ 지지하거나 호감이 있는 정당은

광주·전남지역민 절반 이상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이번 여론조사에서 '지지하거나 호감이 있는 정당'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.1%는 국민의당을 택했다. 이어 30.7%는 더불어민주당, 5.0%는 새누리당과 정의당이라고 각각 답했다. 1.6%는 기타 정당, 3.6%는 '잘 모르다'를 각각 선택했다.

이 같은 국민의당 지지도는 광주일보가 지난 1월1일 발표한 여론조사의 정당지지도보다 더 높은 것이다.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탄생하지도 않았던 '안철수 신당'의 지지도가 41.9%였다. 또 당시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(5.2%)와 박주선 신당(1.5%),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(0.5%) 지지도를 합친 것(49.1%)보다도 더 큰 것이다. 이는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광주지역 의석을 석권하는 등 호남에서 압승(28석 중 23석 차지)을 거둔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.

당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4.8%와 4.9%

더민주 29%로 국민의당의 절반...새누리·정의당 順 정당지지도와 엇비슷...20대 이하 더민주 많이 꼽아

세부지역별 응답은 정당지지도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. 광주 동부권에서 국민의당 선택자가 더민주에 비해 '62.5%대 23.3%', 광주 근교권에서는 '60.4%대 26.2%', 전남 동북권에서는 '61.5%대 26.7%', 광주 북구에서는 '61.2%대 29.1%', 광주 광산구에서는 '60.6%대 29.0%'의 지지율 차이를 기록했다. 반면, 광주 서구(56.6%대 35.6%)와 전남 동남권(57.9%대 35.3%)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작았다. 특이한 것은 광주 남구로, 이 지역에서는 정의당을 호남 민심을 대변할 정당으로 꼽은 응답자가 9.3%나 됐다. 이곳에서 국민의당 응답자는 54.9%, 더민주 응답자는 24.1%였다.

연령대별 분석도 단순 정당지지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. 30대(63.3%대 25.6%), 40대(51.5%대 36.4%), 50대(66.5%대 26.0%), 60대 이상(68.1%대 20.6%)에서는 국민의당 선택 응답자가 더민주 응답자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반면, 20대 이하에서는 국민의당 응답자와 더민주 응답자가 '41.5%대 44.4%' 비율로 나타나 그 격차가 크게 줄었다. 단순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민주 42.4%로 34.1%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당을 크게 앞선 것과는 다른 것으로 비록 지지 정당은 더민주여도 총선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.

차기 대통령감으로 더민주 소속인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, 정세균 의원 등을 지지한 응답자의 76.5%, 52.1%, 45.3%는 각각 더민주를 택했다. 반면 안철수 대표, 김무성 전 대표, 박원순 시장 등을 지지한 응답자의 93.8%, 49.2%, 44.6%는 국민의당이라고 각각 답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국민의당 지지율 54.1%...더민주 30.7%에 2배 가까이 높아 연령대 높을수록 국민의당 지지...20대 이하는 더민주 앞서

9%를 각각 기록, 이번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. 또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'안철수 신당' 지지도가 광주에서 45.3%로 전남(39.3%)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광주와 전남 모두 54.1%를 기록,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광주에서 시작한 '국민의당 바람'이 전남 전역으로 확산한 결과로 해석된다.

세부 지역별로 광주 근교권에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에 대해 '58.7%대 24.7%', 북구에서는 '55.8%대 29.8%', 전남 서남권에서는 '54.6%대 27.1%'의 지지율 차이를 기록하며 압도했다. 특히 광주 동구에서는 국민의당이 '69.7%대 17.2%'로 더민주에 3배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했다. 반면, 광주 서구(49.6%대 39.0%)와 전남 동남권(48.9%대 36.6%)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작았다.

연령대별로 20대 이하에서는 더민주 지지도가 42.4%로 34.1%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당을 앞선 반면 나머지 연령대인 30대(50.4%대 35.1%), 40대(47.9%대 37.5%), 50대(63.0%대 22.9%), 60대 이상(66.7%대 21.3%)에서는 국민의당 지지도가 더민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지지도 격차가 벌어지는 등 세대별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.

차기 대통령으로 안철수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의 90.6%는 국민의당을 택했으나 문재인을 선택한 응답자는 77.8%만이 더민주를 지지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■ 국민의당이 해야 할 역할

‘정권교체 선도’ ‘야권통합’ 우선 20%는 ‘호남발전 기여’ 꼽아

20대 총선에서 호남 의석 28석 중 23석(광주 8석 석권, 전남 10석 중 8석, 전북 10석 중 7석)을 차지하며 호남 제1당이 된 국민의당에 대해 광주·전남지역민들은 야권통합, 정권교체 선도, 호남발전 기여, 새누리당 견제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이번 여론조사에서 '제3당인 국민의당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'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6.8%는 '야권통합', 22.0%는 '정권교체 선도', 20.0%는 '호남발전 기여'라고 각각 답했다. 또 11.2%는 '여당인 새누리당 견제', 9.4%는 '중도세력 모으기', 5.7%는 '더불어민주당 견제', 4.9%는 '잘 모름'을 선택했다.

이 조사 결과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. 우선, 광주에서는 야권통합(28.8%), 정권교체 선도(24.4%), 호남발전 기여(17.6%) 순으로 전체 결과와 비슷했으나 전남에서는 야권통합(25.3%), 호남발전 기여(21.8%), 정권교체 선도(24.4%) 순으로 2.3위가 바뀌었다.

세부지역별로 광주 북구와 동구, 전남 동남권 등은 '야권 통합→호남발전 기여→정권교체 선도' 순인 반면 광주 광산구와 서구, 남구 등은 '정권교체 선도→야권 통합→호남발전 기여' 순으로 역할을 기대했다. 광주 근교권은 '호남발전 기여→야권 통합→정권교체 선도' 순으로 조사됐다.

특히 광주 광산구는 '정권교체 선도(24.2%)→야권 통합(23.9%)→새누리당 견제(16.8%)→호남발전 기여(14.5%)' 순으로, 전남 서남권은 '야권통합(24.5%)→정권교체 선도(19.9%)→호남발전 기여(18.0%)→새누리당 견제(17.9%)' 순으로 조사돼 이곳에선 새누리당 견제를 국민의당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밝은광주안과 의원

자꾸 눈물이 흐르나요?

유루증 :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
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,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◎ 치료방법 :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, 약물 투여, 비루관 개통·확장술,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.

1566-9988
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

진료내과 스킨과 / 라식 / 라섹 / ICL / 백내장 / 녹내장 / 망막 / 눈성형 / 노안

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

법인회생

법인회생이란?
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·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·주주·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대표변호사 곽민섭

-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·부장판사
- 광주지방법원 판사 (회생 및 파산업무)
- 특허법원 판사
- 법학박사, 경제학석사
- 세무사, 변리사

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
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-228-2266